

A Music Therapist's Musical Individuation

Kim, Dong Min*

In Jungian theory the developmental stages of human life are symbolized as a circle that represents the wholeness, and the open ended process towards the wholeness is called Individuation. In the belief that every human being has his or her own "Music Child" that represents one of the creative, genuine, healthy cores of the self, we are all musical beings, and each individual has his or her own relationship to music. Musical individuation therefore refers an open-ended process towards the wholeness in music. Being a Nordoff-Robbins Music Therapist, who values the therapeutic essence of innate creativity and uses improvisational music to maximize it, helped me realize that not only the client but also the therapist has to reach his or her own musical self, Music Child, in order to facilitate any change or growth through music. This realization led me to start a journey towards my own musical individuation. Hence, this essay is a very personal document illustrating my ongoing journey towards musical individuation that will allow me to become more whole and genuine in music.

Keywords : Musical Individuation, Music Child, Musical Unconsciousness, Shadow, Anima, Animus, Archetype

* Ewha Womans University Music Therapy Clinic

음악치료사의 음악적 개성화

김동민*

융의 발달이론에 따르면, 인생은 만 35에서 40세를 전후로 페르소나가 형성되어가는 전반기와 참자기를 찾아 나서게 되는 후반기의 두 단계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나는 발달적으로 개성화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역치점에 서 있으며, 음악-중심 음악치료사라는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는 한 인간으로서 나의 개성화 과정은 음악적 참자기와 음악 안에서의 자기실현을 찾아나서는 과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나는 이러한 과정을 음악적 개성화(musical individuation)라 명명하고자 하며, 음악적 성장과 변화가 곧 음악 외적 성장과 변화를 상징한다는 음악-중심 음악치료 철학의 기본전제를 바탕으로, 나는 내 자신의 음악적 개성화 과정이 곧 나의 음악 외적 개성화 과정을 대변하리라 믿는다. 이 글은 아직도 많은 여정이 남아있고, 어쩌면 참된 완성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음악적 개성화 과정에 대한 나의 개인적 기록이며 진솔한 고백이다.

핵심어 : 음악적 개성화, 음악아동, 음악적 무의식, 그림자, 아니마, 아니무스, 원형

* 이화여자대학교 음악치료클리닉 (eastjadekim@gmail.com)

선(禪)사상의 영향을 받은 융심리학에서는 인간이 자신의 의식과 무의식을 통합하고 참자기(Self)를 찾아나가는 자기실현의 과정, 즉 개성화(individuation)의 과정을 원(mandala)에 비유하는데, 이는 원이 원형적으로 총체성(wholeness)을 상징하기 때문이다(Spiegelman & Miyuki, 1987). 융의 발달이론에 따르면, 인생은 만 35에서 40세를 전후로 페르소나가 형성되어가는 전반기와 참자기를 찾아 나서게 되는 후반기의 두 단계로 나누어진다(이부영, 2001).

이러한 관점에서, 나는 발달적으로 개성화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역치점에서 있으며, 음악-중심 음악치료사라는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는 한 인간으로서 나의 개성화 과정은 음악적 참자기와 음악 안에서의 자기실현을 찾아나서는 과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나는 이러한 과정을 음악적 개성화라 명명하고자 하며, 음악적 성장과 변화가 곧 음악 외적 성장과 변화를 상징한다는 음악-중심 음악치료 철학의 기본전제를 바탕으로(Aigen, 2003), 나는 내 자신의 음악적 개성화 과정이 곧 나의 음악 외적 개성화 과정을 대변하리라 믿는다.

음악적 개성화를 위하여 나는 먼저 음악과 나의 관계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었다. 모든 인간에게는 음악에 반응하는 선천적 음악성, 즉 “음악아동(Music Child)”이 존재한다는 놀도프-로빈스 음악치료의 핵심 철학에 따르면(Nordoff & Robbins, 1980; Robbins, 2005), 음악과 나의 관계는 언제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추적할 수 없는 원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는, 음악과 나의 관계가 의식뿐만 아니라 무의식 수준에서도 탐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식 수준에서의 음악과 나의 관계는 유아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나에게 있어 노래와 춤은 내 자신과 분리될 수 없는 일상적 의제(ritual)였다. 네 형제들 중 맏이었던 나는 어린 동생들에게 엄마 품을 일찍 내어주고 할머니 품에서 자랐다. 할머니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더할 나위 없이 사랑해주셨지만, 노래하고 춤추는 나의 모습을 유달리 사랑스러워하셨고 그런 할머니 덕에 나는 어린 시절 음악 안에서 자기-가치감과 전능감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하면서부터 음악과 나의 관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나는 음악 안에서 행복하기 보다는 고통스러움을 느끼기 시작했고, 음악은 나에게 있어 성취하고 정복해야만 하는 대상이 되어버렸다. 음악 안에서 맘껏 누리던 전능감과 자유는 어느새 열등감과 불안으로 바뀌어 버렸고, 나는 급기야 음악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음악에 대한 열등감, 불안과 두려움을 그대로 가진 채, 나는 뉴욕대학교 음악치료 석사과정에 입학하였다.

뉴욕대학교 음악치료 석사과정에서 나는 매 학기 즉흥음악치료집단에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했는데, 나는 첫 두 학기 동안 한 번도 집단에서 음악을 연주하지 않았다. 그야말로 악기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다른 구성원들이 즉흥적으로 만들어내는 “소음”을 못마땅한 얼굴로 마지못해 듣곤 하였다. 당시 연주가로서 석사과정까지 마친 상태였

던 나에게 악보 없이 즉흥적으로 연주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쉽게 도달할 수 없는 그 높은 경지의 성스러운 음악을 결코 내키는 대로 연주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었다. 나의 이러한 모습은 그 당시 음악과 나의 관계를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었다.

이러했던 내가 내적 창조성의 치료적 가치를 중시하고 이를 최대한 활성화하기 위하여 즉흥연주를 주로 사용하는 놀도프-로빈스 음악치료사가 된 것은 진정 아이러니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놀도프-로빈스 치료사 훈련과정은 치료사 자신의 “음악아동(Music Child)”을 찾아 나서고, 접촉하고, 활성화하는 여정이었다. 놀도프-로빈스 음악치료에서 추구하는 최상의 치료목표는 음악 안에서의 자기실현인데, 이는 클라이언트뿐만 아니라 치료사 또한 자신의 “음악아동”과 접촉하고 이를 성장시켜야만 가능한 것이다. 요컨대, 놀도프-로빈스 음악치료사가 된다는 것은 음악적 개성화 과정의 시작을 의미한다.

융심리학의 개성화 과정은 종종 선불교의 “십우도”로 설명된다. 십우도는 소를 찾아다니다가 발자국을 따라가서는 드디어 소를 발견하고, 거친 소를 힘겹게 잡아 보살피고, 잘 길 들여 그 등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니 소에 대한 생각이 사라지고, 급기야 자신에 대한 생각조차 사라져 공의 상태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이때에 소는 탐색하고, 인식하고, 통찰하고 통합해야 할 무의식을 상징한다(Spiegelman & Miyuki, 1987). 개성화의 첫 단계는 자신의 의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무의식을 인식하는 것이다. 따라서 나의 음악적 개성화는 음악과 나의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음악적 무의식에 대한 탐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I. 삶의 전반기

유교문화의 지대한 영향으로 오랜 동안 현모양처가 여자의 최고덕목으로 간주되었던 대한민국에서 여자로서 태어난다는 것은 정숙하고, 순종적이고, 소극적이고 암전한 삶을 살도록 세뇌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나는 독특하고, 개성이 강하고, 원하는 바가 확실하고, 주장이 명확하고, 감정 표현에 과감하거나 열정적이면 여자로서 부끄러운 일이라 배우며 자랐다. 어려서부터 생각이 많고 감수성이 예민했던 나는 이런 문화 속에서 나의 생각과 감정을 어느 정도 드러내어야 여자로서 용납되는 일인지 항상 혼란스럽고 조심스러웠다. 그러나 음악을 듣고 연주할 때만큼은 온전히 내 자신 그대로일 수 있었다. 음악은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안전지대였다. 특히 노래는 나의 총천연색 감정들과 생명력 있는 열정을 맘껏 즐기고, 표현하고, 분출할 수 있는 비밀 통로였다. 그래서 딸이 아내로서, 엄마로서 평범한 여자의 삶을 살기 원하셨던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음대에 진학하였으나 음악적 인간이 되는 것과 음악을 전공하는 것은 결코 동일한 일이 아니었고, 음악이 삶이

아닌 경쟁의 수단이 되도록 가르치는 교육 현실에서 음악은 나에게 힘겨운 업이 되어 갔다. 음악을 사랑하기 보다는 두려워하도록 배워감에 따라 나는 음악으로부터 멀리 도망가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다니던 뉴욕대학교를 견학하다 음악치료란 생소한 단어를 접하게 된 나는 그 두렵고 무서운 음악으로 도대체 누구를 어떻게 치료한단 말인지 궁금해졌다. 그래서 무작정 뉴욕대학교 음악치료학과 사무실을 찾아갔고, 호기심에 이끌려 놀도프-로빈스 음악치료센터의 세션 녹화 자원봉사자가 되었다. 나는 아직도 내가 지켜본 첫 음악치료 세션을 생생히 기억한다. 두 명의 훌륭한 음악가들이 많은 관중들이 들어찬 큰 홀이 아닌 작은 방에서 말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장애 아동과 함께 신나게 음악을 연주하던 모습은 글자 그대로 내 인생의 방향을 단번에 수정하였다. 오랫동안 고민거리였던 나의 음악이 어떠한 유의미한 일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된 나는 마치 잃어버렸던 내 이름표를 우연히 길에서 다시 주운 느낌이었다.

II. 나의 음악적 페르소나와 그림자 알아차리기

뉴욕대학교 음악치료 석사과정에서 나는 처음으로 나를 음악적으로 표현해보라는 주문을 받았다. 물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악보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황당해하는 나에게 그 황당한 기분을 피아노나 목소리로 표현해보라는 주문이 이어졌다. 설상가상이었다. 나는 하는 수 없이 괴롭고 민망한 맘으로 아무렇게나 피아노를 두드리면서 학기가 끝나자마자 가차 없이 휴학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수업이 끝나자마자 나는 연습실로 달려가 신성한 음악을 모독한 것에 대하여 속죄하듯 오페라 아리아들을 불러댔다. 나의 첫 학기는 이러한 일들의 연속이었다.

첫 학기가 끝나갈 무렵 나는 서서히 즉흥연주에 대한 거부감이 음악에 대한 나의 피상적 두려움과 경직된 사고 때문이란 사실을 알아차리기 시작하였다. 그때까지 내가 전부로 믿어왔던 클래식 음악은 단지 음악의 한 부분일 뿐이며, 선불리 음악을 연주할 수 없었던 것은 음악 안에서 경험되는 나의 불안전함과 이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깨달음은 나의 음악적 “소(Ox)”를 찾아나서는 여정의 첫 걸음이 되었다.

Ⅲ. 삶의 후반기

1. 나의 음악적 그림자와 접촉하기

나의 음악적 페르소나는 내 삶의 전반기에 형성되었다. 이는 예술적, 심리적 완벽성을 추구하였고, 어떠한 실수나 서투름도 참아낼 수 없었다. 모든 음들은 고도의 의식과 이성에 의해 철저히 계산되고 준비되어 만들어져야 했다. 계획되지 않거나 준비되지 않은 소리는 용납되지 않았다. 불완전한 소리는 곧 무능력을 의미했으므로, 나의 음악적 페르소나는 불완전한 연주에 대한 극도의 불안을 가지고 있었다. 연주자가 되기 위하여 음악대학과 대학원에서 공부할 당시, 나의 되풀이 되는 꿈들 중 하나는 내 몸의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내는 것이었다. 실생활에서도 감기에 걸리지 않기 위해 강박적으로 손을 씻고 또 씻었다. 이는 완벽성을 추구했던 나의 페르소나의 모습 그대로였다. 나의 음악적 페르소나가 그토록 싫어하고 두려워했던 것은 나의 음악적 그림자, 즉 음악 안에서 나타나는 나의 불완전함이었다.

이러한 나의 모습은 뉴욕대학교의 음악치료학 석사과정에서 매 학기 요구되었던 즉흥음악치료집단에서 극명히 드러났다. 두 학기 동안 나는 집단에서 즉흥연주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철저히 계획되고 준비되지 않은 소리를 즉흥적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은 음악에 대한 모독이라 생각했다. 아무렇지도 않게 마음대로 만드는 “소음”들을 “음악”이라 부르며 의미를 부여하는 집단구성원들이 한심하고 못마땅했다. 졸업이 가까워서야 나는 집단구성원들에 대한 나의 부정적 감정들이 모두 나의 음악적 그림자에 대한 두려움의 투사였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음악에 대한 나의 불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무의식적 역동들에 대해 인식하고 탐색하기 시작하였다.

2. 나의 음악적 내적 인격: 여성성과 남성성 알아차리기

내 안에는 아마도 수많은 음악적 내적 인격으로서의 여성성과 남성성이 존재할 것이다. 그들 중 일부는 음악가로서의 나에게 힘을 부여할 것이고, 또 다른 일부는 내 안에서 냉철하고 무자비한 음악 평론가로 활동할 것이다. 아마도 나의 가장 중요한 음악적 아니무스는 대단한 클래식 음악 애호가이신 나의 아버지일 것이라 생각한다. 음악에 대한 나의 사랑과 열정이 분명 아버지로부터 전해졌기 때문이다. 천부적 재능을 가진 사람들만 음악가가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셨던 아버지께서는 평범한 내가 음악가가 되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셨다. 나는 그런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싶었다. 그러나 내가 연습을 할 때 마다 아버지께서는 천부적 재능을 가지지 못한 내가 부르는 노래를 건널 수 없으시다는 듯 굳게 닫힌 방에

서 볼륨을 높여 다른 음악가의 음악을 들곤 하셨다. 그러던 어느 날, 온 가족이 라이브 음악을 연주하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던 중 아버지께서 내게 하셨던 말씀은 아직까지도 내 음악적 자존감의 핵심으로 존재한다. “아빠가 우리 큰 딸 노래를 너무 듣고 싶은데, 저기 나가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들을 수 있게 한 곡 불러다오.”

또 하나의 중요한 아니무스는 놀도프-로빈스 음악치료 수퍼바이저였던 Turry 박사님이다. 그는 정식음악교육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장르의 음악도 한번 들으면 그의 것으로 만드는 천부적인 재능을 소유한 음악가이다. 그의 음악은 너무도 따듯하고 아름답고 자유로워서 듣는 이로 하여금 시공간을 망각하게 하는데, 정작 그런 음악을 연주하는 그의 모습은 너무도 여유롭다. 그가 지극히 칭찬 많은 수퍼바이저 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의 천부적 재능은 나의 음악적 불완전함에 대한 불안을 가중시켰다.

나의 음악적 무의식에서 가장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여성은 대학시절 지도교수님이시다.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의 은사이신 그 분은 조수미만큼 노래를 잘하지 못하면 음악가의 꿈을 꾸는 것 자체가 한심스런 일이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곤 하셨다. 그분은 독설가로도 유명하셨는데, 실기지도 시간에 못마땅하고 한심스럽다는 표정으로 먼 곳을 쳐다보시고 계시거나 아예 도저히 더 이상 듣고 있기 괴로우시다며 학생들을 문밖으로 쫓아내시기 일쑤였다. 이제 갓 스무 살이 된 어린 학생들에게 “너희들 같이 재능 없는 학생들을 가르치려니 너무 한심하다. 왜 내가 너희 같은 음악적으로 무식하고 무능한 애들 때문에 이렇게 시간낭비를 해야 하지? 내가 너희들의 지도교수란 사실이 너무도 창피하고 망신이다 너희는 음악가가 되기에는 재능이 너무 부족해.” 라는 내용의 말씀을 자주하셨다. 그분의 말씀들은 내 안의 내재화된 혹독한 비평가가 되어 음악가로서의 자기-가치감과 자존감을 지속적으로 무너뜨렸고, 그 결과 나는 오랫동안 극심한 무대공포증에 시달려야 했다. 이와 같이 내 안에는 의식 수준을 너머 나의 음악적 인격과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온 남성과 여성들이 존재하며, 내재된 그들의 존재는 음악과 나의 관계에서도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3. 음악적 원형 살피기

자, 음악이란 무엇인가? 어젯밤 잠들기 전 나는 이 질문에 사로잡혔다. 음악은 신비롭다. 기적에 가깝다. 음악은 생각과 현상, 정신과 물질의 중간에 존재하는 일종의 매개체 같기도 하다 - 조만간 현현되어야 할 정신, 그리고 공간 없이 작용하는 물질같이 말이다. 우리는 음악이 무엇인지 모른다(Heine, Ansdell, 1995, p.7 에서 재인용).

음악적 개성화의 여정을 시작하여 나의 음악적 개인 무의식에 대한 탐색에 이르렀을 때, 이와 더불어 집단 무의식인 원형, 즉 음악적 원형에 대한 탐색도 필요함을 깨달았다. 이에,

나는 “음악이란 대체 무엇인가?”란 근본적 질문부터 시작하였다. Ansdell(1995)은 음악이란 인간에게 의미를 부여하거나 신체적으로 경험되는 모든 소리의 가능성을 구현한 것이라 하였다. 어떤 이들은 음악과 소리는 구별되어야 하며, 따라서 모든 소리들이 음악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반면, 음악이 인간의 좁은 시각 안에서 정의될 수 없으므로 모든 소리들은 음악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Bruscia (1998)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음악은 항상 소리와 관련되는가? 침묵, 소음, 진동은 음악에 속하지 않는가? 음악은 오로지 청각적인가? 항상 귀를 통해서만 경험되어야 하는가? 음악은 인간만의 것인가? 즉, 모든 음악적 소리들은 인간으로부터 탄생하는가? 아니면 환경이나 자연으로부터의 소리도 음악에 포함되는가? 새소리와 고래들의 노래도 음악인가? (p.8)

이러한 Bruscia의 질문은 음악이 관점과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같은 새소리라도 우울하고 피곤한 하루를 보내고 잠을 청하는 사람에게는 그저 잠을 방해하는 소음으로 들릴 수 있지만 사랑에 빠진 연인들에게는 아름다운 세레나데로 지각될 수 있다. 즉, 내가 내리는 음악의 정의는 환경과 같은 외적 요인과 정서와 같은 내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Ansdell(1995)이 우리의 행동과 산물은 곧 우리의 상태를 말해준다고 밝힌 바와 같이, 나의 음악은 나에게 대한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다.

Aigen(1999, 2003) 역시 음악은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느끼는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드러내므로, 음악은 그 음악을 창조하는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정신적 상태와 유관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더 나아가 Turry(1998)는 개인의 음악은 그(녀)의 무의식적 면모의 상징적 투사일 수도 있다고 하였다. 즉, 음악적 요소들은 자기(self)의 무의식적 요소들의 상징적 표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각 음악요소는 개인의 특정 면모를 상징적으로 표상하며, 각 음악적 진행은 개인의 심리적 진행과 연관되기도 한다(Bruscia, 1987). 이러한 이론들이 바로 음악적 개성화가 곧 음악 외적 개성화와 연결된다는 내 철학의 밑바탕이며, 따라서 나는 음악적 개성화의 여정을 통하여 나의 음악적 참자기(Self)뿐만 아니라 음악 외적 참자기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4. 아직도 먼 여정

“당신은 신입니까?” 그들이 물었다.

“아닙니다.”

“천사입니까?”

“아닙니다.”

“성인(Saint)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당신은 누구십니까?”

부처가 답하기를, “저는 깨어있을 뿐입니다.”(Smith, 1995,p.82)

비록 내가 지금 나의 음악적 무의식을 조금이나마 알아차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음악 안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경험한다. 음악적 개성화의 여정을 시작하기 전과 후의 유일한 차이는 내가 언제, 어떻게, 그리고 왜 음악 안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경험하는가를 조금 더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 뿐일지도 모른다.

나의 음악적 개성화의 여정에는 아직도 많은 단계들이 남아있다. 소를 보살피고, 길들여서 그 등을 타고 귀향하고, 그 소도 나도 잊어버리는 일들은 아마도 오랜 시간을 요할 것이고, 어쩌면 이러한 일들을 다 이루는 것이 불가능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므로 나는 그저 이렇듯 긴 여정 내내 충분히 음악 안에서 깨어있기를 원할 뿐이다.

참고문헌

- 이부영 (2001). *아니마와 아니무스*. 한길사.
- Aigen, K. (1999). The True Nature of Music-Centered Music Therapy Theory, *British Journal of Music Therapy*.13(2).
- Aigen, K. (2003). *Music Centered Foundations of Music Therapy Theory and Practice*. Gilsum, New Hampshire: Barcelona Publishers.
- Ansdell, G. (1995). *Music for Life: Aspects of Creative Music Therapy with Adult Clients*. Bristol, PA: Jessica Kingsley Publishers Ltd.
- Bruscia, K. (1987). *Improvisational Models of Music Therapy*. Springfield, IL: Charles Thomas Publishers.
- Bruscia, K. (1998). *Defining Music Therapy*. Gilsum, NH: Barcelona Publishers.
- Lee, C. A. (2003). *The Architecture of Aesthetic Music Therapy*. Gilsum, NH: Barcelona Publishers.
- Nordoff, P. & Robbins, C. (1977). *Therapy in Music for Handicapped Children*. London: Victor Gillancz.
- Nordoff, P. & Robbins, C. (1980). *Creative Music Therapy*, New York: Nordoff-Robbins Center.
- Robbins, C. (2005). *A Journey Into Creative Music Therapy*. New Hampshire: Barcelona Publishers.
- Smith, Huston. (1995). *The World's Religions: Our Great Wisdom Traditions*. New York: Harper Collins Publishers.

- Spiegelman, J. M. & Miyuki, M. (1987). *Buddhism and Jungian Psychology*. Phoenix, AZ: Falcon Press.
- Turry, A. (1998). Transference and Countertransference in Nordoff-Robbins Music Therapy. In K. E. Bruscia (Ed.), *The Dynamics of Music Psychotherapy*. Gilsum, New Hampshire: Barcelona Publishers.

- 게재신청일: 2008. 09. 25.
- 수정투고일: 2008. 10. 15.
- 게재확정일: 2008. 10. 24.